살가죽들의 사랑 샘플북, 김승해,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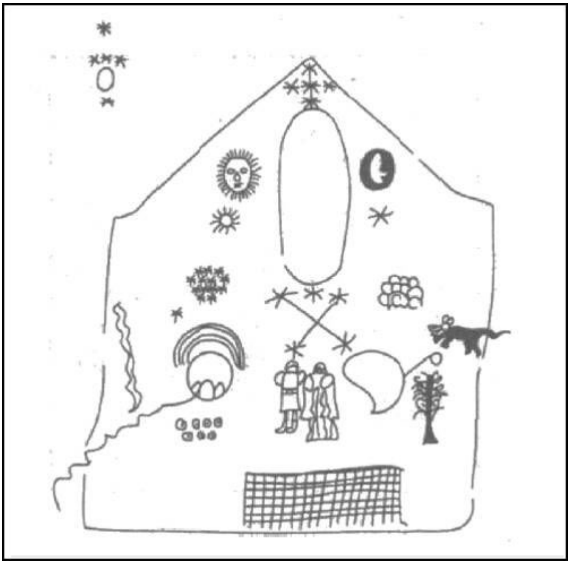
어쨌거나 전 제가 할 일을 할 거예요. 전 씨발 좆같이는 못살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항복하란 말은 하지 말라고요.

보디 브로더스 –《더 와이어》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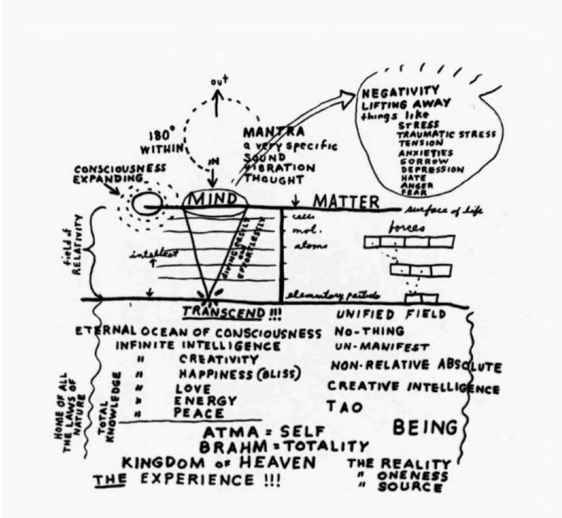
차례



1



2


out
IN
180°
WITHIN
MANTRA
a very specific
SOUND
VIBRATION
THOUGHT
NEGATIVITY
LIFTING AWAY
things like
STRESS
TRAUMATIC STRESS
TENSION
ANXIETIES
SORROW
DEPRESSION
HATE
ANGER
FEAR
CONSCIOUSNESS
EXPANDING
MIND
MATTER
surface of life
field of RELATIVITY
cells
mol.
atoms
forces
intellect
elementary particles
TRANSCEND !!!
UNIFIED FIELD
ETERNAL OCEAN OF CONSCIOUSNESS
INFINITE INTELLIGENCE
" CREATIVITY
" HAPPINESS (BLISS)
" LOVE
" ENERGY
" PEACE
NO-THING
UN-MANIFEST
NON-RELATIVE ABSOLUTE
CREATIVE INTELLIGENCE
TAO
BEING
HOME OF ALL THE LAWS OF NATURE
TOTAL KNOWLEDGE
ATMA = SELF
BRAHM = TOTALITY
KINGDOM of HEAVEN
THE EXPERIENCE !!!
THE REALITY
" ONENESS
" SOURCE

3

붉은 말

그 붉은 말이 보일 때마다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거든

그를 뒤따라간 지 벌써 십수 년이 넘었다

그를 볼 때마다 그가 점점 커져서
나는 그의 뒤에 있기도
나는 그의 앞에 있기도
나는 그의 위에 있기도
나는 그의 아래 있기도 했고

그는 너무 커서
나는 너무 작아서

토끼에 물린 상처는 낫지 않았지
내가 흘린 고름이 모이면
나만 한 덩어리가 되겠지
덩어리는 내가 되겠지
토끼에 물린 상처는 낫지 않았지

[redacted] 만난 [redacted]

[redacted]

[redacted] 두어 번 [redacted] 잠들었습니다
[redacted] 오줌과 [redacted]
[redacted] 침과 [redacted]

[redacted]

[redacted] 사람은. 나를두고그사람은떠나갔어요씨발
[redacted]
덩어리가 [redacted] 보았다고 [redacted]

[redacted]
나는 [redacted]
산 [redacted]
내가 [redacted]

[redacted] 편이에요
[redacted]

[redacted] 붉은 [redacted]

[redacted] 뒤에서, [redacted] 무어라 [redacted] 흘리며 [redacted] 내게 [redacted] 편이에요.

[redacted]

대기권 밖으로

ㅍㅍ는 늘 화나 있었다. 이유는 다양했다.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었다. ㅉ는 그와 사귈 때 한창 그가 미워한 것들, 그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정리를 해둔 적이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가 싫어한 것들

패배한 [redacted] 불가피성, [redacted] 주장하는 [redacted] 못하는 [redacted] 안일한 [redacted] 자아를 [redacted] 분명치 [redacted] 거의 [redacted] 없다는 [redacted]

[redacted] 비열한 [redacted] 호소만으로 [redacted] 정치인들, [redacted] 하루였어. [redacted] 불행과 [redacted]

어쨌든 나이를 먹다 보면 점점 좋은 것들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주변에 좋은 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된다. 이를테면, 머리가 꽃밭인 사람들이 아니라, 좋아하는 걸 곁에 두는 것에 남다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 말이다. 아무래도 미움을 나누는 일은 오래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ㅍㅍ처럼 꾸준히 싫다는 소리만 하는 인간들은 지긋지긋해지니까, ㅉ는 ㅍㅍ와 헤어지기로 했다. ㅉ는 곁에 좋아하는 것들을 두기 위해 애쓰기로 했다. 그게 벌써 5년 전 일이다.

몇 달 전 ㅍㅍ가 나오는 꿈을 꾼 ㅉ는 수소문해 ㅍㅍ와 연락하게 되고, 세상을 그렇게 미워하던 그가 꾸역

꾸역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란 한편 안도하게 된다. ㅉ는 ㅍㅍ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를 곁에 두었던 거다. 이렇게 ㅉ와 ㅍㅍ는 이전과는 좀 다른, 다소 거리를 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ㅍㅍ가 말한 싫은 것들을 정리하면 또 다음과 같다.

그가 미워한 것들 2

죽음으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 결국 죽고 나서야 밝혀지는 진실들,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모든 상황들, 도취된 모든 예술가들, 자신이 옳다 믿는 사람들, 사장의 말을 잘 듣는 관리인들, 여전히 자본가가 특정될 수 있다 말하는 무식쟁이들,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솔루션, 정치적 옳음. 예술과 음란을 가르는 논리: 여기 숨어서 거유로리나 빨고 자빠진 비열한 새끼들. 정당한 폭력이 있다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인 양 현실에 도취된 게으름뱅이들, 믿음, 전체를 말하는 단 하나의 언어가 있을 거라 말하는 믿음, 어쩔 수 없었다는 호소, 플랜b, 수사학적 개수작, 할인행사, 1+1, 열심히 하는 모든 이들, 진심, 말해지는 모든 진심, 말해지지 않은 것들을 알아주길 바라는 안일함,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등신들, 세계의 복잡성에 좌절한 지식인들, 좌절한 모든 지식인들. 그럼에도 지식인을 자처하는 모든 이들.

여전히 ㅍㅍ와 사귀는 일은 무척 지긋지긋한 일이었기에 ㅉ가 ㅍㅍ에게 이별을 통보하기로 한 아침이었다. 아침 일찍 ㅍㅍ가 ㅉ에게 연락해 하늘이 보이는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ㅉ는 ㅍㅍ와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에 그러자 말했다. 한 시간 뒤에 만난 ㅍㅍ는 양손에 정수기 물통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정수기 통을 택시 트렁크에 실은 ㅍㅍ는 기사에게 말했다. 하늘이 보이는 곳으로 가주세요. ㅍㅍ가 ㅉ에게 말했다. 너는 곧 놀라운 걸 보게될 거야.

ㅍㅍ와 ㅉ는 하늘이 보이는 곳에 도착해 정수기 통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준비한 돗자리 위에 나란히 누웠다. ㅉ가 ㅍㅍ에게 말했다. 넌 대체 어떻게 사니,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사니. ㅍㅍ가 말했다. 몰라, 이걸 다 미워할 수 있는 내가, 그러고도 살아남은 내가 너무 좋은가봐. ㅍㅍ가 빈정거렸다. ㅉ는 다시 물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사는 거야? ㅍㅍ가 ㅉ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걸 내 눈앞에서 치워버릴 만큼 용감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렇게 용감했다면, 날 치워버렸겠지. 둘은 말없이 하늘을 봤다. 그러다 ㅍㅍ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내가 언제나 하늘로 가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이 대기권을 탈출하고 싶어했다는 거. ㅉ는 ㅍㅍ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ㅍㅍ가 말했다. 잘 봐, 놀라운 걸 보여줄게.

[redacted] 벌컥벌컥 마셨다. 처음엔 [redacted] 그에겐 [redacted] 그 [redacted] 수 [redacted] 꾹꾹 [redacted] 두 [redacted] 안고 [redacted] 처음 [redacted] 줄었다. 이는 2018년 [redacted] 베르사유에서 열린 제26차 [redacted] 킬로그램 [redacted] 특수 [redacted] 정수기를 [redacted] 부풀어 [redacted] 밀어냈다. [redacted]

[redacted] 내가, [redacted] 우웩, [redacted] 우웩. [redacted] 숨을 [redacted] 그는 [redacted] 않았다. [redacted] 그는 [redacted] 아침에 [redacted] 몸에 [redacted] 그는 하늘로 [redacted]

[redacted] 다리를 떼어냈다. [redacted] 모처에 [redacted] 한쪽 [redacted] 떨어져 [redacted] 크레이터를 [redacted] 잠시 [redacted] 항문과 [redacted] 양 [redacted] 그를 [redacted]

[redacted] 떨어진 [redacted]

[redacted] 머리가 [redacted]

살가죽들의 사랑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명과 단체 및 회사 이름은 실제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국군 창설 이후 겨우 그들이 죽인 적군의 수가 그들이 죽인 자국민의 수를 아주 조금 넘어선 시점이었다. 이를 눈치챈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발설하지 않았다.

[redacted] 삽입된 [redacted] 톱밥으로 [redacted] 20 [redacted]

인간 여성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로봇 여성만큼은 감당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마치 여성에 대해선 그래야 한다는 것처럼, 세상 어딘가에는 꼭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여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을 죽이는 로봇 같은 건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인간을 가장 잘 죽이는 건 인간이고 인간은 그런 인간을 가장 사랑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몇 세기에 걸쳐 인류는 수많은 기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기계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이 어떤 이들을 안심하게 하기도 했다. 어쩌면 인간은 다른 인간의 죽음에 책임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지도 모른다. 결국 마지막엔 우린 다른 죽은 인간을 옆에 두고 애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redacted] 같은 [redacted] 섹스로봇은 [redacted] 더 [redacted] 2만 대를 [redacted] 고작 [redacted] 비슷했으니, [redacted] 박힌 [redacted]

[redacted] 목적지에 [redacted] 묻고, [redacted] 떨고, [redacted] 될 [redacted]

[redacted] 주소 [redacted]

[redacted] 넘게 [redacted] 하는 [redacted] 일 주일에 서너 [redacted] 때문에 [redacted] 처리 해냈다. [redacted] 짓도 [redacted] 섹스로봇도 [redacted] 나뒹구는 [redacted] 그걸 [redacted] 꾸역꾸역 [redacted] 견딜 [redacted]

[redacted] 달 전 [redacted] 수리중이던 [redacted] 우는 [redacted] 집주인의 [redacted] 것들이, [redacted] 집주인도, [redacted] 아주 [redacted] 이르게 [redacted] 연락처를 [redacted] 와중에 [redacted] 새끼는 [redacted] 번씩 [redacted] 익스플로잇을 [redacted] 소각시켰다. [redacted]

[redacted] 천장과 [redacted] 집행유예 [redacted]

어젠 크리쉬나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JJ가 나오는 불길한 꿈을 꾸었고, JJ가 언급되는 불길한 패킷이 보였으며, JJ와 빨리 맛있는 중국음식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늘 불길한 꿈을 꾸고, 그는 늘 불길한 패킷을 읽으며, JJ는 중국음식도 크리쉬나도 사랑하므로 주말에 꼭 만나자고 답했다.

[redacted] 산부인과 [redacted]
신고해서 [redacted] 은총이다 [redacted] 만났을 [redacted] 엽 [redacted] 했더니 [redacted]
남자는 [redacted] 한참 [redacted] 벗겨 [redacted]

[redacted]

[redacted] 나눠주는데, [redacted] 사람이랑 [redacted]

크리쉬나와 JJ는 산부인과 의사의 자궁을 잘 썰어 숯불에 구워먹었고, 스프링남의 손가락 끝을 모두 잘라 볶아 먹었다. 그의 머릿 가죽을 벗겨선..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 잘 손질하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다듬다보니 괜히 비위가 상해 먹을 수 없겠더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벌써 반세기 전의 물건이었고, 방치된 지도 아주 오래되었다.

송영수 씨?

[redacted] 번 [redacted] 바깥을 [redacted] 했고, [redacted] 손잡이를 [redacted] 걷어찼다. [redacted] 문 [redacted] 않은 [redacted] 오물에서 나는 [redacted]

[redacted] 알았으면서도 [redacted] 끼지 [redacted] 자신을 [redacted]

송영수의 양쪽 다리에 붙은 작동의족은 관리하지 않아 고장난 것으로 보인다. 각각 다른 모델이다. 왼쪽은 인도에서 만들어졌고, 종아리 안쪽에 푸시 버튼 타입의 시동 버튼이 달려 있다. 오른쪽은 남한에서 만들었고, 무릎 안쪽에 압전센서로 만든 재시동 버튼이 달려 있다. 둘 다 각자의 이유로 인해 재시동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종종 JJ의 회사에 수리 관련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송영수는 다른 지체 장애인들처럼 그때그때 돈이 생길 때마다, 정부 지원이 있을 때마다 하나 씩 사다 끼웠을 것이다. 인공근육의 길이나 수, 장력, 반응 속도, 모터의 토크, 배터리의 수명과 전압, 충전 시간과 작동 시간, 회전축의 갯수와 위치, 회전 방향 모두 다르니 몇년 지나지 않아 그의 허리는 비대칭으로 망가졌을 것이다. JJ가 송영수의 눈 앞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와중에도 작동의족은 둘 다 작동하지 않았다. 둘 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JJ가 물었다. 송영수 씨? 송영수가 지축이 흔들릴 듯 한숨을 쉬었다. 올 것이 왔다. 하지만 나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송영수의 작동의족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바닥을 기던 그는 고함을 치며 JJ를 위협했다.

JJ가 송영수 위에 올라타 목을 비틀어 잡고 바닥에서 퍼덕거리는 머리통을 빙 둘러 망치를 여섯 번 내려쳤다. 귓구멍 옆에서 바닥을 두들겨 패는 파열음 때문에 송영

수에게서 이명이 가시질 않았다. 침을 질질흘리며 바들바들 떠는 송영쉐게 재차 물었다. 송영수 씨 맞냐고. 송영수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송영수입니다. 제가 송영수 맞습니다. 송영수가 말하자 마자 그의 입에서! 썩은 내가 나오는! 침이! JJ의 얼굴이 튀었다. 다시 JJ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사상이 자리잡는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소유자의 아내, 집주인의 증언이었다. 저 여자가 그랬어요, 센터로 가라고. 우리가 나가자마자 아파트에서 연기가 났어요. 검사가 묻는다. JJ씨는 불이 날 거라는 걸 알았다는거죠? JJ가 답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조치를 취했는데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세 개 층이 완파 되었는데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검사님은 목숨을 걸고 애써주신 119 대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건가요?

[redacted] 동안 [redacted] 마음을 [redacted] 아이를 [redacted] 반성문을 [redacted]

[redacted] 그때 [redacted] 존나게
[redacted]

[redacted] 눈알
을 [redacted]
헛소리 [redacted]
아가리를 [redacted]
이렇게 [redacted] 죽여버리다 [redacted]
될까? [redacted] 배는
[redacted] 잘게 [redacted] 구워먹고, [redacted]
끝에 [redacted] 우리는
[redacted]
바다가 [redacted]
해. [redacted]
죽여버릴까? [redacted]
왜 [redacted]
걔네들은 [redacted] 우리가 [redacted]
씹
[redacted]
여전히,

[redacted] 참아서, 우리가 [redacted] 다 [redacted] 죽이면서 [redacted] 없어. [redacted] 죽여버리자. [redacted] 말자. [redacted] 내 [redacted] 두고, [redacted] 돌아오자. [redacted] 괜찮다. [redacted] 번은 [redacted] 걸.

바다를 등진 크리슈나가 말했다. 세상은 엉망이야. 돌이킬 수 없이 엉망이야. 근데 이제 남 탓만 할 순 없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나가자. 이렇게 크리슈나는 점술사가 되었고 JJ는 엔지니어가 되었다.

[redacted] 송영수가 [redacted] 내뱉었다.

JJ가 미수금 내역에 대해 알린다. 연락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왜 연락을 안 받는거지? 미수금 내역을 받은 송영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게 내가 쓴거라고요? 근데 왜 당신이 오는거지? 당신은 누구야? JJ가 송영수

의 말을 끊는다. 됐고, 저 로봇 할부금이랑 유지 보수 비용을 우리가 추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JJ가 로봇이라고 말하자마자 송영수는 작게 '로라'라고 정정한다. 근데 돈을 안 내니까 돈을 받으러 온거예요. 송영수가 말한다. 저는 돈이 없어요. JJ가 말한다. 아니예요, 당신은 돈이 있어. 송영수가 말한다. 아닙니다. 전 돈이 없어요. JJ가 말한다. 당신에겐 돈이 있어, 나만 믿으면 돼.

[redacted] 말한다. [redacted]
입이 [redacted]
[redacted] 송영수에게
[redacted]
송영수는 [redacted] 무슨 [redacted]
[redacted] 맞습니다. [redacted]
[redacted] 어떻게 [redacted] 움ㅋ녀귄
다. [redacted]
[redacted] 낼 수 [redacted] 있는
거예요. [redacted]
[redacted] 당신은 [redacted] 곱하기 [redacted] 그리
고 [redacted]

[redacted] 다 [redacted]

[redacted] 디엔에이치캐피탈은 [redacted] 소식을 [redacted] 이것 이야말로 자신의 [redacted]

[redacted] 관련해 [redacted] 및 [redacted] 지원에 [redacted] 제도 [redacted] 발주에 [redacted] 알고 [redacted] 기회 다. [redacted] 장애인도 [redacted]

신동철은 몇달뒤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해당 지역의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정책고문, 회계이사 등의 직책으로 지역 사회의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산업계 공동의 노력의 일환으로 성생활 개선용 로봇 산업을 주도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크리쉬나는 개성 첨단재료공단에 위치한 그래핀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되고 몇 주간 JJ의 집에 머물렀다. JJ는 크리쉬나에게 집세는 괜찮다고 당부해두었지만 염치있는 모든 이들이 한 번씩 들르는 지옥에 그도 발을 들이게 되었다. 한 번이라도 염치 있었던 인간이라면 지옥의 한 자리가 염치 있는 이들로 가득 차 있을거라 확신할 것이다. 크리쉬나는 어느날 아침 벌떡 일어나 JJ에게 말했다. 그 새끼를 존나게 팼어야 했어. 크리쉬나는 JJ에게 90을 빌려 개성에 두고 온 짐을 가지러 가겠다 말했다. 몇달 뒤 조선일보는 개성의 한 공장에서 생산된 그래핀에서 얼마 전 사라진 공장 작업반장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한다. 개성의 첨단재료 공단이 남한의 퍼주기식 지원과 당국의 묵인 하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울에 돌아와 몇 건의 약물 유통에 관여한 후 통장에 담배 몇 보루를 살 돈이 남았을 무렵 구로고대병원에서 공고한 식약처 인증 임상실험에 지원했다. 귀 뒷쪽에 미각 전달경로에 접근하는 전극으로 기계적 자극을 전송해 뇌에 직접 신호를 전달하는 실험이었다. 이런 실험은 그 전에도 있어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이번 실험은 표준화된 화드웨어 인터페이스와 통신규약을 ‘제안’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를 통해 관련 표준을 선점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으로 국가 연구지

원을 받은 사업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크리쉬나는 회복하기도 전에 통신규약 교재 요약본으로 초보적인 통신에 성공했고, 그 자신도 이를 이용해 약물 유통이나 껌떼기 같은 그래핀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했다. 수술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전례없던 규모의 태양풍으로 크리쉬나, 그와 같은 수술을 받은 45명의 인터페이스에 고전압이 발생해 크리쉬나를 제외한 모두의 뇌가 녹아내려 사망한 것이다. 살아남은 크리쉬나는 주변 전파로부터 패킷을 읽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맞닿은 그래핀이 태양풍에 준하는 규모의 우주선에 노출될 경우 그래핀 사이에서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이용한 발전체로 우주 항공 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된다.

[redacted] 있어? [redacted] 그 [redacted] 있었던 [redacted] 만든다. 화가 [redacted] 그때 [redacted] 집에 [redacted] 눈여겨봤던 [redacted]

[redacted] 분명
하다. 나한텐 로라밖에 [redacted] 전부예요.
[redacted] 개 [redacted]
거품물고 [redacted]

[redacted] 무상지원되지만 [redacted]
담당 [redacted]
[redacted] 하지 [redacted]
[redacted] 특히 이게 [redacted]
더 [redacted] 스포츠카
를 타는 [redacted] 보일
[redacted]
[redacted] 끝났지만 [redacted]
여성들이 [redacted]

[redacted] 이 [redacted] 흘러 [redacted]
뒷처리도 [redacted] 감염시켜 [redacted] 아무것도 애쓸 [redacted] 대해선 [redacted] 관한 [redacted] 섹스 [redacted] 약염기성 [redacted] 깨끗이 [redacted] 한다는 [redacted] 등 [redacted] 질에 [redacted] 구분했다. [redacted] 인식 [redacted] 이상에 [redacted] 다섯 [redacted] 나온다. [redacted] 루틴은 [redacted] 무리한 [redacted]

[redacted] 너무 [redacted]
[redacted] 70퍼센트 [redacted]
[redacted] 1시간 [redacted]
[redacted] 위해 [redacted]
맞먹었다고 [redacted]
[redacted] 수 [redacted]

[redacted] 위험한 [redacted] 후로 [redacted]
[redacted] 명령을 [redacted]
돌아다니기 [redacted]

[redacted]
[redacted] 일이라는 [redacted]
화물에 [redacted]
[redacted] 때문이다.

[redacted] 호출한 [redacted]
적이 [redacted]

[redacted]
[redacted] 썩는 [redacted] 썩는
냄새라고 [redacted] 하느라 [redacted]
[redacted] 그 [redacted]

송영수 [redacted] 번 [redacted] 재빨리 [redacted] 송영수가 [redacted] 보인다. [redacted] 송영수의 [redacted] 집어던졌다. [redacted] JJ에게 [redacted] 상황에 [redacted]

[redacted] 송영수에게 [redacted]

[redacted] 들어왔다는 건 [redacted]
기계로서 [redacted]
[redacted]' 알고리즘 [redacted]
[redacted] 국회의원이 [redacted]
[redacted] 위조된 [redacted] 샘플을 [redacted] 식약처 [redacted]
[redacted] 7대를 [redacted]
[redacted] 3곳을 [redacted] 2대를 [redacted]
모두 [redacted] 파손되었음을 [redacted]
[redacted] 알고리즘 [redacted]
[redacted] 준비중이라고 [redacted]
[redacted] 불투명해진 [redacted]

[redacted]

[redacted] 업주

[redacted] 뽑아냈다. [redacted] 그의 [redacted] 했다. [redacted] 송영수의 [redacted] 젓가락을 [redacted] 긴 [redacted]

[redacted] 유지 보수 [redacted] 진입한 [redacted] 카세트테입에 [redacted] STT [redacted] 되먹임 [redacted] 어렵게 [redacted] 해당 [redacted] 코드를 [redacted] 재생할 [redacted] 저장할 [redacted] 주변의 전력을 [redacted] 모두 [redacted] 따라 [redacted]

네가 [redacted]

[redacted]

사건의 전말

우리가 충분히 먼 곳에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빛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오래된다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너는 낡은 장판을 걷어 올렸다. 드러난 시멘트 바닥에서 4년 전 거길 비췄던 백색 LED 빛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적색, 녹색, 청색 광원은 장판 밑의 콘크리트 균열에서 4년간 대기중이었다. 네가 그 빛의 말단을 붙잡을 수 있었다면, 구겨진 광선을 천천히 펼칠 수 있었다면. 넌 그 빛의 말단을 붙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실패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어떤 빛은 네 등을 할퀴고 갔을 것이다. 어떤 빛은 네 정수리를 관통했을 것이다. 어떤 빛은 네 발 밑에서 무한히 진동하고 있을 것이다. 너는 어떤 빛을 오른손으로 사로잡았고, 그 빛은 왼쪽 새끼손가락으로 빠져나갔다. 어떤 빛은 네 망막에 걸려 사라졌고 어떤 빛은 아직도 네 배꼽에 고여있다. 어떤 빛은 결국 반사되어 다른 항성을 비추러 떠났을 것이다.

네가 처음 빛났던 순간을 기억한다. 수년치 새벽을 바친 뒤에야 내린 결정의 새벽을 보낸 네가 잠시 빛나던 순간을 기억한다. 인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네가 내보낸 첫 번째 빛이었다 임의로 정하기로 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결정한 것은 것은 언젠가 응답하니까. 어쩌면 그 응답이 이미 출발했을지도 모른다.

네 손등의 빛에 대해 상상한다. 네 정수리와 손톱 밑의 빛에 대해서 상상한다. 이 빛이 각각의 광원으로부터 왔다면, 이 빛의 첨단을 빛의 시작으로 환원할 수 있다면, 언젠가 이 빛의 말단이 결국 내게 닿을 것이라면 그걸 보증할 수 있다면 내 정수리의 시간대와 네 손톱 밑의 시간대가 다르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상상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진 않을까. 그 빛들이 날 관통하던 순간에 내 정수리는 수억 광년 전에, 네 손톱 밑은 수백 광년 전에 있기도 했다 상상할 수 있진 않을까. 그 모든 시간들이 동시에 너와 날 관통했다고, 결국 우리가 이미 그 모든 시간들을 종단했다고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일들은 매일같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그 동시성이 충분히 그럴듯한 동시성이라 해도 우린 느려터졌으니까. 인과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너무 자명하니까. 우린 자명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아. 그것은 자명하니까. 입 밖으로 꺼내지는 것들은 모두 의심스러운 것들이니까.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한 해와 충분한 추돌과 널 추격하는 미래의 말단들. 난 너와의 대화를 모두 내 손톱 밑에 숨겨두었다.

창백한 푸른 점 게임

게임을 시작하기 전

1. 이 게임을 위해선 적어도 세 명의 참가자가 필요하다.
2. 각각 HQ, 보이저, 61억 ㎞를 맡는다.
3. 최대 두 명의 참가자가 HQ를 맡을 수 있다.
4. 이때 한 명은 칼 세이건을 맡는다.
5. 최대 두 명의 참가자가 61억 ㎞를 맡을 수 있다. 이때 한 명은 지구 쪽(시작점), 나머지 한 명은 보이저 쪽(끝점)을 맡을 수 있다.
6. 대화 중 61억 ㎞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7. 61억 ㎞에 두 명이 참여할 경우 끝점이 61억 ㎞를 갱신한다. 증가량은 61억 ㎞ 혹은 61억 ㎞의 끝점이 임의로 결정한다.
8. 어차피 인간들이란 중요한 때엔 항상 느려터졌으니까, 얼마나 늘어나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게임 방법

1. 세 팀은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해 상상한다.

2. HQ와 보이저는 보이저로 전송된 신호에 대해 상상한다.
3. 61억 ㎞는 보이저와 HQ 사이의 거리를 상기시킨다.
4. HQ는 그 신호를 보내기까지 지난한 회의와 행정의 장벽에 관해 상상해본다. HQ가 두 명일 경우 둘은 토론한다. 이 신호의 비용과 시간과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5. 칼 세이건은 찬성 측, HQ는 반대 측에 선다.
6. 61억 ㎞는 보이저와 HQ 사이의 거리를 상기시킨다.
7. HQ와 보이저는 신호를 디코딩하고 처리하는 꼼꼼한 회선과 그 회선을 직조하던 손을 상상한다.
8. 보이저는 결정한다.
9. 보이저는 렌즈와 초기 Vidicon과 열과 우주의 냉기를 상상한다.
10. 일련의 장치를 작동시키는 기계 구조를 상상한다.
11. 61억 ㎞는 보이저와 HQ의 거리를 상기시킨다.
12. HQ는 회신을 상상한다.
13. 61억 ㎞의 거리를 상상한다.

14. 거리를 시간으로, 시간을 거리로 표기하는 경계에 대해 상상한다.

15. HQ는 도취하는 영어권 국가의 백인 남성을 흉내 낸다. 만약 HQ가 두 명일 경우 칼세이건이 해당 남성을 흉내낸다.

16. 61억 ㎞는 지금까지 증가한 거리를 광년으로 환산한다.

17. 보이저는 인간들의 게임이 끝났음을 선언한다. 인간들이란 중요한 때엔 항상 느려터졌으니까.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발 밑의 별빛과 달빛, 내 물통에서 한참 느려진 우주선. 내가 각각 다른 시간과 조우하고 있다는 것, 혹은 내게 전혀 다른 시간이 동시에, 충분히 동시에 관통했다는 것.

어떤 시간들은 단단하고 어떤 시간들은 눈앞에서 흩어진다. 어떤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 내 이마에 부딪쳐 지나가는 것을 보기도 한다. 어떤 시간들은 밀고 나아가야만 했고 어떤 시간들은 날 밀어내기도 했다. 우리의 방향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의 궤적도 옳을 것이란 믿음. [redacted] 마주칠 [redacted]

[redacted]

[redacted] 우리가 [redacted] 어딘가 [redacted] 온 [redacted] 종단할 [redacted]

[redacted] 해는 [redacted] 까맣게 [redacted]

삼 일

하나 둘 셋, 당신이 숫자를 셀 때마다, 나는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그날
여기서 제외된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꼬박 삼일이 되어서 호명이 끝났어요

우리가 모여 그 일에 대해 의논할 때
너는 그 말을 해선 안 되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젠

당신이 세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젠
당신이 들은 것보다 더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젠
우리가 주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흘렸답니다
손끝에선
당신의
숨소리가 가지를

[redacted]

[redacted] 놓았지. 침대 [redacted]

[redacted]

[redacted] 침대에서 [redacted] 나
는 [redacted] 나를 달래고 [redacted] 사과하고

[redacted] 밤이 [redacted]

[redacted] 거
짓말이 [redacted]

[redacted]

단서

오랫동안 널 뒤쫓았다 니가 놓고 간 냄새가 그 단서였다 냄새 몇 개를 비닐에 싸서 오랫동안 널 뒤쫓았다 니가 놓고 간 것은 그게 전부였다

[redacted]

[redacted] 그들은 [redacted] 부수는(하지만 [redacted] 못하는) [redacted] 애비를 [redacted] 아득아득 [redacted] 아이를 [redacted]

지구 아래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한다

[redacted] 땅이 [redacted] 하늘이 [redacted] 합니다. [redacted] 내부에 [redacted]

[redacted] 화성의 [redacted] 안쪽에는 [redacted] 있다고 [redacted] 자기극을 [redacted] 빠져나와 [redacted]

[redacted] 네 [redacted] 통과했습니까? [redacted] 유럽인이었기 [redacted]

[redacted] 재채기가 [redacted] 콧물이, [redacted]

[redacted]

[redacted]

어쩌다보니

마포대교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시각이었다. 해가 이제 막 뜨던 시점이었다. 언제나 서울의 하늘이 그렇듯 그렇게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하늘이었다. ㄹ과 ㅌ에게 새벽 내 나란히 걸을 계획이 있던 건 아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ㅌ은 약속 시간으로부터 15분 늦은 시각에 왔다.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기에 파스타를 먹을지, 근처 라멘집을 갈지 고민하다 배가 터지게 케이크를 먹자며 카페로 갔다. 처음 들어간 카페는 케이크가 정말 맛있었지만, 커피가 너무 썼다. 둘은 원두를 어떻게 로스팅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논의했고 원두가 아니라 타이어를 원두 모양으로 깎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두 번째 들어간 카페에선 케이크에 올라간 크림이 너무 맛없어 ㅌ이 크림 대신 마요네즈를 썼다면 더 맛있었을 거라며, ㄹ은 라드를 썼어도 좋았을 거라며 맞장구쳤다. ㅌ은 ㄹ에게 1절만 하라 경고했다. 세 번째 들어간 카페에선 케이크를 따로 시키지 않았다. 커피와 함께 로투스 하나가 나왔다. 둘은 그 로투스가 그날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다는 점에 동의했다.

잠깐 [redacted] 여전히 [redacted] 이미 늦었다. [redacted] 각자의 [redacted] 무엇을 [redacted] 밤이고, 집에 [redacted]

[redacted] 섹스하고 [redacted] 벗고 [redacted] 오늘 [redacted] 이러리라 다짐한 [redacted] 아니지만 [redacted] 그리되었다. ㅌ [redacted] 않으리라 [redacted]

이게 [redacted] 너 [redacted] 둘은 [redacted] 나오기로 [redacted]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redacted] 뜨고 [redacted] 켜진 [redacted] 지금은 [redacted] 뜨고 [redacted] 우리가 [redacted] 할 것 [redacted]

[redacted] 결코 서로를 [redacted]
있다면 [redacted] 나도 [redacted]
좋아하는 [redacted] 얘길 [redacted]
말들이 [redacted] 이르게 [redacted]
누군가는 [redacted] 것
이다. [redacted]
발견될지도 [redacted] 아무것도 [redacted] 않아. [redacted] 살 [redacted] 되겠
지만 [redacted] 않아. [redacted]
같이하면 [redacted]
답했다. [redacted] 적이 [redacted]
새끼. [redacted] 여기까지 [redacted]
ㄹ이 [redacted]

여기까지다.

[redacted]

피와 똥

내 친구들은 모두 죽거나 다쳤다. 미치거나 이 나라를 떠났다. 대학 시절 강의실 맨 뒷자리에서 세계의 종말에 대해 농담을 따먹던 놈은 정말로 약에 취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고, 가장 먼저 대기업에 취직해 깔끔한 셔츠를 입고 다니던 놈은 공장 자동화 라인 점검 중 오작동한 유압 프레스에 상반신이 짓눌려 하반신만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결혼한 친구들은 신도시의 30평형 아파트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 속에서, 매달 찍혀 나오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아이의 학원비 명세서를 영양분 삼아 천천히, 아주 완벽하게 죽어갔다. 반면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좁아터진 오피스텔 구석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넘기며, 언젠가 찾아올 고독사와 선명하게 병든 노년을 멍하니 기다리고 있다.

나의 오늘은 그 어딘가에 위태롭게 놓여 있을 것이다. 국경 근처의 녹슨 지뢰밭, 혹은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세포를 파괴하기 직전의 고요한 잠복기. 그것도 아니라면 저 끔찍한 상태들 중 하나가 정점의 열기를 뿜어내는 정오 근처에.

결국 [redacted] 뭐가 [redacted] 도시에서 [redacted]

서울 밖을 벗어나자마자 자동주행 기능이 슬슬 맛탱이가 가는 게 눈에 띄었다. 콘크리트 노면의 마모 상태를 감지하는 중앙 서버의 응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카메라 센서는 흐릿해진 지방 국도의 중앙선을 수시로 놓쳤다.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갈팡질팡하며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나는 기계의 가짜 지능을 믿지 못하고 수동 전환 레버를 당겨 운전대의 주도권을 빼앗아 왔다.

수도권의 중심부만 완벽하게 제어하면 그만이라는 거대 IT 기업들과 국토부의 방만이, 이 지방의 말단 도로 인프라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서울의 경계를 벗어난 자율주행은 그저 바퀴 달린 시한폭탄에 불과했다.

내비게이션의 붉은 경로를 따라 한참을 운전해 회색 장벽으로 둘러싸인 교도소에 도착한 게 오후 두 시 정각. 면회실 특유의 찌든 락스 냄새와 알 수 없는 체취가 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간단히 접견 신청 서류를 작성했다. 철제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조금 기다리니, 스피커를 통해 접견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두꺼운 강화유리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그가 걸어 들어왔다. 단 10분간의 허용된 시간. 우리는 그 어떤

거대한 담론도, 억울함의 토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구치소 밥은 먹을 만한지, 밤에 방이 너무 춥지는 않은지, 영치금은 넉넉히 넣어두었으니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빼놓지 말고 사 먹으라는 식의 실없는 안부만을 나누다 나왔다.

"나 괜찮아. 너나 밥 잘 챙겨 먹어."

유리창 너머의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의 메마른 목소리. 수감번호가 찍힌 그의 앙상한 어깨를 보며, 나는 불과 몇 달 전 우리가 국토교통부 검증 위원회와 제조사 감사팀의 눈을 피해 밤새도록 감식했던 그 끔찍한 사고의 데이터 로그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개였다. 차량의 딥러닝 인지 모델과 라이다 센서의 눈에는, 틀림없는 개였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국도 변이었다. 야간의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질긴 통가죽으로 만든 기괴한 개 분장을 하고 도로 위를 기어 다니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다. 전위 예술인지, 기괴한 성적 취향의 발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뒤에는 한 여자가 그의 목에 가죽 줄을 태우고 천천히 이끌고 있었다.

문제는 시속 100㎞로 돌진하던 우리 회사의 4세대 자율주행 세단이었다. 차량에 탑재된 임베디드 Vision 라이브러리는 60프레임으로 들어오는 영상 속에서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짐승의 형태'를 포착했다. 인지 모델

은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인간 객체가 아님. 보호 등급 최하위. 회피 기동 및 급제동 시 차량 탑승자의 안전 계수 저하 우려. 시스템은 브레이크 등 한번 켜지 않고 가속 페달의 전압을 유지한 채 그대로 돌진했다.

[redacted] 그 [redacted] 척추와 [redacted]

본사 지하의 보안 서버를 따서 로우(Raw) 로그를 감식한 결과, 시스템이 내린 결론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것은 '개(Dog)'였다. 소수점 아래 아홉 자리까지 완벽한 확률로, 틀림없는 개였다. 센서 전면부의 야간 음영이나 렌즈의 오염을 가정하고 가상 환경에서 수백 번의 재현 실험을 돌려보았지만 결과는 매번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시뮬레이터 속의 유령 차량은 언제나 같은 지점, 같은 프레임에서 그 남자를 들이받아 으깨버렸다. 그것은 개였다. 틀림없이. 로드킬로 처리하고 보험사 손해사정 지표에 기입하면 그만인 짐승이었다.

이제 책임자를 찾아야 했다. 데이터 레이블링을 담당한 외주 업체에 전달한 데이터에는 개의 모습을 흉내 낸 인간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은 없었다. 내부 시뮬레이션에서도 개의 모습을 흉내낸 인간과 관련된 실험도 관련된 지시도 없었다. 정제해 사용중인 윤리 모델에도

개의 모습을 흉내낸 인간을 치지 말라는 의사결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와 그 역시 그 파멸의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 또한 시스템의 부품으로서 충분히 무책임했다. 인간이! 개를! 흉내낼 거라는 걸! 상상조차하지 않은 우리는 충분히 무책임했다. 최종 배포 단계에서 그 모델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승인 서류에 서명 도장을 찍은 이상,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실의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서 수사관이 그의 뒤통수를 피떡이 되도록 쥐어박아도(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밤마다 찾아오는 양심의 가책이 내 목을 졸라 잠에서 깨어나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비겁하게 잡아뗄 수가 없었다.

누군가는 제물로 바쳐져야 했다. 상부는 꼬리를 자르려 했고, 내 사수인 그는 모든 서류의 최종 검증 책임자가 자신이라며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검찰로 걸어 들어갔다.

10시 선고재판이 열리던 날. 우리가 법원 근처의 세련된 모텔방에서 눈을 뜬 시각은 오전 6시 쯤이었다.

[redacted] 수 [redacted] 사람들처럼 [redacted]

[redacted] 터져버렸다. [redacted] 침대 [redacted] 시커멓게 적셨다. [redacted] 흥건했다. [redacted] 어루만졌다.

다리 사이로 똥물과 핏물을 줄줄 흘리며 엉망이 된 몸으로 욕실로 간 게 7시 쯤이었다.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차가운 샤워기 물을 틀고 비누로 서로의 몸에 묻은 오물을 씻어내면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공포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전에 서로의 체온을 기억해야 했다. 물줄기가 쏟아지는 욕조 안에서 다시 달려가 입으로 한 번 더. 흠뻑 젖은 다리 사이에서 비린내와 배설물의 냄새가 풀풀 풍겼지만, 그 더러움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미쳐있었기에, 그래도 한 번 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 으깨지지 않은 인간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는 듯,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눅눅한 모텔에서 체크아웃 한 시각은 9시 정각이었다. 로비층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방금 전까지 오물 속에서 서로를 탐했던 사이가 아닌 것처럼 멀찍이 거리를 두고 걸어 나갔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따로 택시를 타고 법원 정문 앞에서 만난 게 9시 40분.

차갑고 웅장한 법정 복도 구석, 대리석 기둥 뒤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지막으로 그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었다. 괜찮다고, 변호사가 애썼으니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집행유예로 끝날 거라고 거짓말을 하며 안아준 게 9시 45분이었다.

[redacted] 그를 [redacted] 감흥도 [redacted] 국토교통부의 고위 [redacted] 에러율을 [redacted] 드러내지 [redacted] 방청석은 [redacted] 있었다.

[redacted] 읽었다.

"피고인 [redacted] 6월에 [redacted] 집행유예 [redacted] 법정구속."

[redacted] 위로 [redacted] 거대한 [redacted] 한 [redacted]

[redacted]

[redacted] 시멘트 [redacted] 아침 [redacted] 해야 [redacted] 가

는 [redacted]
헬스장으로 [redacted] 해야 [redacted]
돌아오는 [redacted]

[redacted] 곳에서부터 [redacted]

[redacted] 피떡이 [redacted]
[redacted] 주식 [redacted]
[redacted] (하지만 [redacted]

[redacted] 검사의 [redacted]
[redacted] 아니 [redacted]
[redacted] 피를 [redacted]

[redacted] 사람을 [redacted]
[redacted] 되물었다. [redacted] 인간
들을 [redacted] 결국 [redacted]
[redacted] 나아지나요? [redacted]
좀 [redacted]

[redacted] 차가웠으며, [redacted]

내 몫을 찾아서

추심업자 A는 고추를 긁으면서 B에게 말했다.

모르지 [redacted] 말하지만 [redacted] 아니었어. [redacted] 모든 [redacted] 2 [redacted] 말해놓고 [redacted]

A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골목길의 냉기 속에 흩어졌다. 세상의 시스템이 애초에 자신 같은 부류에게는 오직 2%의 생존만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타인과 섞일 수 없는 궤도 위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A가 말을 이었다.

"난 내가 다른 사람 처럼 되고 싶다거나 그들과 같은 목표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난 그걸 거절 해본 적도 없어. 그냥 그건 나한테 없는거야. 다만 내 앞에 아무도 없다는 게, 내 뒤에도 아무도 없을거라는

게, 그걸 느낄 때마다 좀 갑갑해질 뿐이야.”

그 갑갑한 징후는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다.

겨울의 막바지였다. 으레 그렇듯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돌탑이 출현해 도심으로 향하는 대중교통이 모두 마비되었다. 비현실적인 재난 속에서도 빚을 독촉하는 일상만큼은 멈추지 않았다. 오전에 연락했던 채권추심업자 A가 마침내 DDD의 문을 두드렸다. 집 안의 공기는 눅눅했고, DDD는 문 열러 가는 길에 방바닥에 발바닥이 쩍쩍 들러붙는 것이 무척 신경 쓰였다.

문을 열자, 차가운 복도 불빛 아래서 피로에 찌든 추심업자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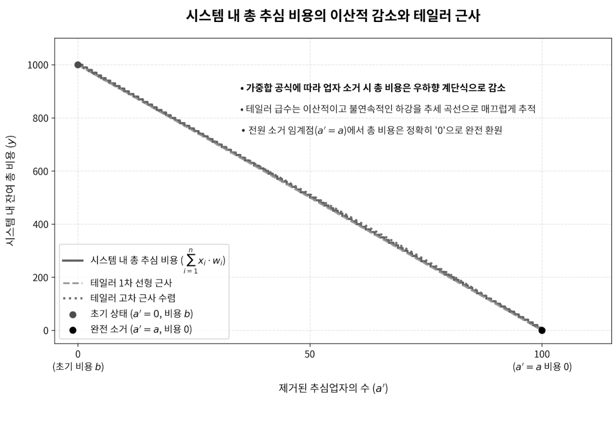
추심업자 A가 물었다.

왜 [redacted] 돈이 [redacted] 일단 [redacted] 근데 [redacted] 누가 [redacted] 압니까? [redacted] 갚을 [redacted] 있습니까? 나는 [redacted] 없는데요? 돈이 [redacted] 돈이 [redacted] 그게 [redacted] 지각한 [redacted]

[redacted] 단어 [redacted] 증명 해보세요. [redacted] 제가 [redacted] 있습니까? [redacted] 모릅니다. 왜 [redacted] 이미 [redacted] 가진 [redacted] 그의 [redacted] 월급날은 [redacted] 압니다. [redacted] 하십니까? [redacted] 월급날이 되어야 [redacted] 수 [redacted] 이걸 [redacted] 어렵습니까? [redacted] 갚을 [redacted] 돈이 [redacted] 그렇게 [redacted]

자, 이렇게 상상해보자. 한 명의 추심업자의 목이 잘려 광장에 내걸렸다. 그렇게 세계의 추심업자의 수 a가 $a-1$이 되었다. 그러면 추심업자 1에게 할당될 비용은 분수 함수 $f(a') = \frac{b}{a-a'}$의 궤적을 따르게 된다. 이 기괴한 가치 독점 시스템의 내재적 역학을 통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식을 초기 상태($a' = 0$)를 중심으로 테일러 전개하여 다음과 같은 무한급수의 형태로 분해할 수 있다.

$$f(a') = \frac{b}{a} + \frac{b}{a^2}a' + \frac{b}{a^3}(a')^2 + \frac{b}{a^4}(a')^3 + \ldots = \sum_{n=0}^{\infty} \frac{b}{a^{n+1}}(a')^n$$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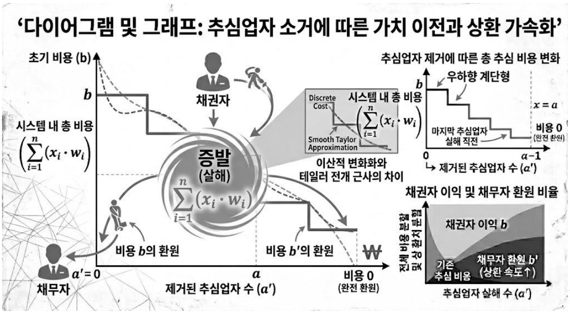
[redacted] 목표가 뭡니까? 채권자가 채권을 [redacted] 것입니다. [redacted] 채권자를 [redacted] 무슨 [redacted] 채권자를 [redacted] 말입니까? [redacted] 돈이 있는데 [redacted] 하는 [redacted] 아닙니까? [redacted] 것 [redacted] 것 [redacted] 돈은 [redacted] 갚아야지, [redacted] 갚으라고 [redacted]

[redacted]

일단 추심업이라는 직업이 어떤 조건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 본질을 알아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채무 계약을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조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선 일단 돈이 와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이 되돌아가기 위한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데, 보통 우리는 그걸 '시간'으로 설정한다. 즉, 채무자 A는 채권자 B로부터 돈을 받고 그걸 되돌려주는 미래의 시점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며 서로의 관계가 규정된다.

추심업자는 그 안에서 채권자를 대변할 뿐이다. 채무자의 진짜 채무 관계는 추심업자가 아닌 채권자와의 계약이다. 즉, 추심업자는 채권자 그 자체가 아니다. 다만 채권자의 계약 이행이 성공했을 때, 추심업자와 채권자 사이의 별도 계약에 따라 추심업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하며, 바로 이 가능성이 추심업을 성립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이득의 가능성은 고스란히 비용으로 환원되어 채무의 이자를 통해 충당된다. 여러 경제학적 법칙을 끌어와 채무에 일정한 이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은 분명 가능하다. 하

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이자는, 사실상 오직 이 '추심을 위한 비용'으로 소모될 뿐이다.



[1]

결국 시스템의 기생충에 불과하지 않냐는 DDD의 궤변은 마침내 가장 취약하고 날것의 감정을 건드리는 아귀다툼으로 치달았다.

DDD가 낮게 읊조리듯 물었다.

[redacted]
또 [redacted] 당신 [redacted] 안에 [redacted]
나 폐경 지났어.' [redacted]

---

[1] LLM으로 생성한 이미지이다. 2026년 6월, Google의 Gemini를 통해 생성했다.

[redacted] 당신은 [redacted] 알고 [redacted]

[redacted] 채웠다. [redacted] 있던 [redacted] 그 끔찍한 [redacted]

[redacted] 역설적이게도 [redacted]

[redacted] 인해 [redacted] 자신이 [redacted] 되었다. 쫓기던 [redacted] 결국 [redacted]

[redacted]

[redacted] 자본이 [redacted] 그는 [redacted] 이 [redacted] 세상에서 [redacted] 뿐이었다.

[redacted] 복도에서 [redacted] 등 [redacted] DDD 가 [redacted]

[redacted] 너는 [redacted] 않아 [redacted] 될 [redacted] 많은 돈을 [redacted] 돈을 [redacted] 될 [redacted] 수도 [redacted] 괜찮아? [redacted] 어느 [redacted] 있겠니? [redacted] 차지한 [redacted]

그 [redacted] 이제 [redacted]

[redacted] 말았다. [redacted] 보러 갈 [redacted] 마비 되었고, [redacted]

DDD는 멍하니 [redacted] 채.

미주

[1] 이미지 출처 추정: Kathleen Goligher의 ëctoplasm 기록 사진 계열. William Jackson Crawford, *The Psychic Structures at the Goligher Circle* (1921)

[2] 이미지 출처 추정: Catalhoyuk(차탈회위크) 관련 벽화/도상 자료

[3] 이미지 출처 추정: Maharishi International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의 *Maharishi on Vedic Cognition* 페이지에 실린 “Atma to Brahm Chart” 계열 도표. https://www.miu.edu/1981-new-delhi

후기

- 〈대기권 밖으로〉. 2020년경 작성되었다. 2024년 8월 22일 에이미 앰플 명의로 곡물창고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었다. https://gokmool.blogspot.com/2024/08/blog-post_22.html
- 〈살가죽들의 사랑〉, 2024년에 작성되었다.
- 〈붉은 말〉, 2023년에 작성되었다.
- 〈사건의 전말〉, 2017년에 작성되었다. 2023년 12월 17일 에이미 앰플 명의로 곡물창고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었다. https://gokmool.blogspot.com/2023/12/blog-post_17.html
- 〈삼 일〉, 2023년에 작성되었다. 2023년 12월 12일 에이미 앰플 명의로 곡물창고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었다. https://gokmool.blogspot.com/2023/12/blog-post_12.html
- 〈단서〉, 2024년에 작성되었다. 2023년 12월 16일 에이미 앰플 명의로 곡물창고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었다. https://gokmool.blogspot.com/2023/12/blog-post_16.html

- 〈어쩌다보니〉, 2022년에 작성되었다.
- 〈피와 똥〉, 2022년에 작성되었다. 2023년 11월 10일 에이미 앰플 명의로 곡물창고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었다. https://gokmool.blogspot.com/2023/11/blog-post.html
- 〈내 몫을 찾아서〉, 2021년에 작성되었다. 2024년 8월 13일 에이미 앰플 명의로 곡물창고 블로그에 공개된 〈추심업자에 관한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https://gokmool.blogspot.com/2024/08/blog-post_13.html

모두 어쩔 수 없었다.

제목 살가죽들의 사랑 샘플북

저자 김승해

편집 김미루

감수 박준석

발행 금치산자레시피

디자인 써드엔지니어링카르텔

출간년도 2026

출판 금치산자레시피

이메일 gtsz.rcp@gmail.com

웹사이트 http://blog.gtszrcp.org